

西周 青銅器 《逯盤》 銘文 研究

朴惠淑*

<목 차>

1. 序 言
2. 《逯盤》 銘文의 隸定과 考釋
3. 全文韓譯
4. 內容分析
5. 結 語

1. 序 言

《逯盤》은 중국 陝西省 楊家村에서 2003년에 출토되었다. 《逯盤》에 수록된 銘文의 字수는 373자에 달한다. 이는 中華人民共和國 建國(1949년) 이후 발견된 器物 중에서 銘文의 字數가 가장 많은 것이다. 長篇에 속하는 《逯盤》은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21세기 중요한 考古 發掘 중의 하나로 歷史學、考古學、文字學界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逯盤》 銘文은 祭祀 祝文으로 器物 제작자인 逯가 祭祀 時에 前代 先祖들을 기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銘文은 먼저 先祖의 功績을 칭송한 다음에 그 先祖가 당시의 王에게 貢獻한 功績 등을 서술하고 있다. 先祖와 時王의 결합은 西周 金文 研究에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먼저 《逯盤》에는 12대에 걸친 周王

* 崇實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1) 현재까지 最長篇의 西周 青銅器는 淸 道光 末년에 陝西 岐山에서 출토된 《毛公鼎》으로 중복된 글자를 포함하여 모두 497자가 새겨져 있다.

世系가 완벽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는 器物의 斷代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12代 周王 世系를 西周 時期의 세로 좌표로 보고, 각 시기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銅器들과 계련할 수 있다.

본고는 먼저 《逯盤》명문의 隸定과 考釋을 시도하고자 한다. 《逯盤》의 탁본은 《考古與文物》(2003)의 수록본을 참조하였다. 銘文의 예정은 李學勤(2003)이 예정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다른 학자들의 예정도 참조하였다. 銘文 考釋이 선행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器物이 출토되면 먼저 銘文의 考釋을 일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고는 銘文의 개별 문자를 살펴보고 분단별 考釋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考釋한 내용을 韓譯한 후에, 銘文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逯盤》銘文의 隸定과 考釋

(1) [1①-1⑩]



逯曰：“不(丕)顯朕皇高且(祖)單公，

1) 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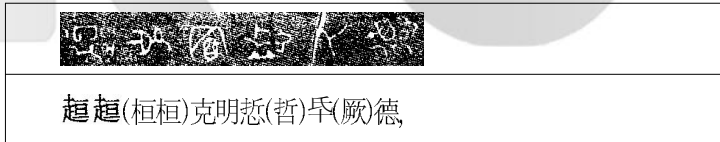
「逯」는 器物 製作者를 가리킨다. 1985년에 楊家村에서 출토된 編鐘의 器物 主人과 동일인이다. 이 글자는 일찍이 吳大澂 등이 「逯」로 考釋하여, 舊版《金文編》에서는 이를 따르고 있다. 「逯」는 2003년 楊家村에서 같이 출토된 壺와 匜의 기물 주인인 單五父 또는 叔五父와 同一人이다. 「逯」는 이름이며, 「叔」은 行렬을 가리키며, 「五」는 逯의 字로 「伍」로 환독해야 한다²⁾.

2) 李學勤, 2003

2) 單公

「單」은 逯 가족의 封地이다. 單씨 가족은 兩周시기에 명성이 있는 가문으로 單氏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金文과 先秦 文獻에 자주 보인다. 이 銘文에 나오는 「單公」은 기물제작자인 逯의 始祖로서 文王、武王의 臣下였다. 單氏는 文王、武王시기의 單(shàn)公이 始祖인 가문이다. 「單」은 오래된 姓氏이다. 「單」은 일찍이 軍事組織을 일컫는 용어였으며, 周나라 때에는 農戰組織을 칭하기도 했다. 「單」은 이런 군사조직을 일컫는 용어에서 單(dān)이라는 姓氏로 바뀌게 된다. 《集韻·寒韻》에서는 「單」은 “姓也。鄭有櫟邑大夫單伯，同作檀”이라 풀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姓」은 「氏」에 해당된다. 또한 鄭、櫟邑은 陝西 關中지역에 소재한 곳으로 單(shàn)氏는 이곳의 舊族으로 보인다³⁾.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單은 shàn과 dān 두 가지로 발음되는 글자이다. 이 銘文에서 逯의 先祖인 單은 shàn으로 발음되는 陝西 지역의 舊族을 가리킨다.

(1-2) [1⑩-1⑬]



1) 逯逯(桓桓)

「逯逯」은 典籍에서 「桓桓」으로 쓰이며 西周 金文에 자주 보인다⁴⁾. 《爾雅》에서 「桓」은 ‘위엄·오르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⁵⁾. 「桓桓」은 ‘위엄있다·위풍당당하다·위엄있는 용모나 태도’를 나타낸다. 주로 武將을 찬양 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桓桓」은 先秦 文獻에도 그 용례가 자주 보인다⁶⁾. 여기에서는

3) 周曉陸, 2003

4) 《禹鼎》：“不顯逯逯 皇祖穆公克夾召先王尊四方”、《虢季子白盤》：“逯逯子白”

5) 《爾雅·釋訓》：“桓桓、烈烈、威也。”

6) 《尚書·牧誓》：“尚桓桓。”、《詩經·魯頌·泮水》：“桓桓于征，狄彼東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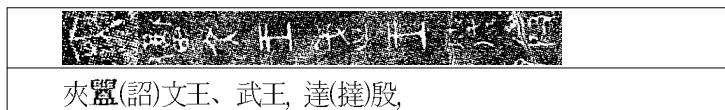
單公의 武功이 출중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2) 克明(哲)孚(厥)德

「克」은 《說文》에서 ‘끓어지다’⁷⁾, 《爾雅》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克」은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무게에 견디다·이기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金文에서는 ‘점령한다·함락시키다’⁸⁾, ‘~할 수 있다’⁹⁾, ‘人名’¹⁰⁾ 등의 뜻으로 쓰인다. 여기에서는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였으며, 先秦文獻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있다¹¹⁾. 「明」은 ‘현명하다’는 의미이며, 「哲」도 ‘현명하다’는 뜻이다. 「孚(厥)德」은 ‘그 덕’이란 뜻이다. 「孚」은 先秦文獻에서 「厥」로 쓰였다. 「厥」은 「其」 또는 「彼」 등의 대명사와 의미 및 용법이 같으며, 金文에서는 三人稱 또는 不定稱 指示代名詞로 주로 쓰였다¹²⁾. 또 「德」은 ‘德行’을 의미한다. 고대 중국인의 「德」은 ‘마음으로써 끈게 바라보며 이를 길으로 實踐躬行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厥」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대상은 ‘單公의 德’이다.

“克明其德”、“克哲其德”은 金文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로서, 《詩經》에도 자주 출현한다¹³⁾. 이 銘文에서는 單公이 매우 지혜롭고 事理에 밝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3) [1⑩-2⑦]



7) 《說文·克部》：“克，肩也。象屋下刻木之形。”

8) 《爾雅》：“隹(惟)斌(武)王既克大邑商。”

9) 《癸鐘》：“文考克明孚(厥)心。”

10) 《克鐘》：“克敢對揚天子休。”

11) 《尚書·堯典》：“克明俊德。”、《詩經·大雅·蕩》：“靡不有初，鮮克有終。”

12) 容庚, 1994

13) 《大雅·烝民》：“(仲山甫)既明且哲，以保其身”，朱熹《詩集傳》：“明，謂明于理。哲，謂察于事。”
《大雅·皇矣》：“維比王季……其德克明”，朱熹《詩集傳》：“克明，能察是非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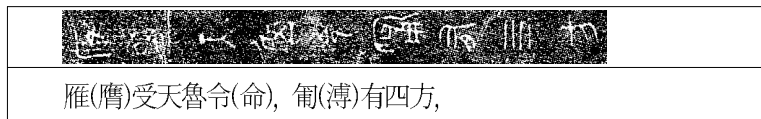
1) 夾(盨)(詔)

「夾(盨)」는 「盨夾」로도 쓰이며, 「盨」는 「詔」로 환독한다. 「夾」은 《說文》에서 ‘가지다·쥐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으나¹⁴⁾, 先秦 文獻에서는 ‘보좌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였다. 《爾雅》에 보면 「詔、亮、左、右、相」을 같은 의미로 풀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좌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周禮·天官·太宰》의 “以八柄詔王，馭群臣。”에서 「詔」를 鄭玄은 ‘돕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 「夾(盨)」는 같은 의미를 連用한 것으로 ‘보좌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夾詔文王、武王”은 ‘文王、武王을 보좌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 達(撻)殷

「達」은 「撻」로 환독 하며, ‘토벌하다·정벌하다’는 의미로¹⁵⁾ 先秦 文獻에서도 그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¹⁶⁾. 《牆盤》의 “適征四方，達殷畎民”은 ‘武王이 殷나라를 정벌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는데, 이 銘文에서도 「達(撻)殷」은 ‘殷나라를 토벌하다’는 뜻이다.

(1-4) [28-216]



1) 雁(膺)受天魯令(命)

「雁」은 「膺」의 假借字이며, ‘진심으로·衷心으로’란 뜻으로, 뒤의 「受」와 조합되어 ‘충심으로 받아들이다’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受」는 金文에서 「授」와 「受」의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받다’의 뜻인 「受」

14) 《說文》：“夾，持也。”

15) 裘錫圭.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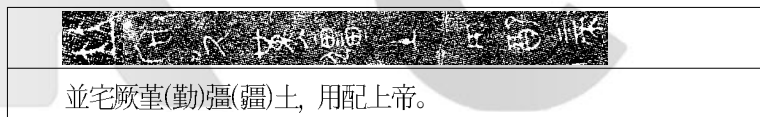
16) 《尚書·顧命》：“昔君文王武王……用克達殷集大命”，裘錫圭《史牆盤銘解釋》：“達即撻伐之撻。”

로 쓰였다. 「天魯令(命)」은 ‘크나큰 하늘의 명’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命」과 「令」은 西周 金文에서 서로 통용된다. 金文에서의 「膺受」는 「大令(命)」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예가 빈번하다. 이러한 「膺受大令(命)」은 先秦 文獻에서 「膺天命」 또는 「膺更大命」의 형태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¹⁷⁾. 즉 여기에서는 ‘크나큰 하늘의 명을 받아들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匍(敷)有四方

「匍」는 「敷」의 通假字로 쓰이며, ‘펼치다’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널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有」는 「佑」의 通假字로 ‘돕다’는 의미이다. 「四方」은 《詩經》과 金文에 자주 보이며¹⁸⁾, 周王이 직접 다스리는 王國 주변의 광활한 지역을 가리킨다. 「匍有四方」은 ‘널리 천하를 보호하셨다’로 해석된다.

(1-5) [217-38]



1) 並宅

「并」의 甲骨文과 金文 자형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이다. 《說文》에서는 ‘나란히 하다’는 의미로 풀이하였으며¹⁹⁾, 《廣韻》에서는 ‘겸하다·합하다’로 해석하고 있다²⁰⁾. 「宅」은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나라를 세우다’는 의미로 쓰였다. 《詩經·商頌·玄鳥》의 “天命玄鳥, 降而生商, 宅殷土茫茫。”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17) 《史記·周本紀》：“於是武王再拜稽首，曰：‘膺更大命，革殷，受天明命。’”

18) 《大雅·江漢》：“經營四方，告成于王。四方既平，王國庶定。”、《大雅·民勞》：“惠此中國，以綏四方。”

19) 《說文》：“並，併也，從二立。”

20) 《廣韻》：“併，兼也。”

《廣韻·靜韻》：“併，合和也。”

2) 厥董(勤)疆(疆)土

「董」은 「勤」의 통가자로 쓰였으며, 《爾雅》에서는 ‘노동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²¹⁾. “董(勤)疆(疆)土”는 ‘근면하게 나라를 다스리다’는 의미이다. 周나라 사람들은 文王과 武王이 殷나라를 멸망시켜 넓은 천하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또한 근면하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내용은 先秦 文獻에도 보인다²²⁾.

(2) [39-315]



1) 學

「學」자의 甲骨文 字形은 𠄎、𠄏、𠄐 등으로 義符인 「雨」와 聲符인 「于」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金文에서도 같은 형태이다. 이 銘文에서는 「學」을 가리키는 發語詞로 金文에 자주 보이며, 「曰」로 보기도 하고 의미가 없는 점두사로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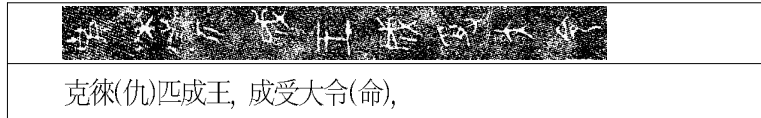
2) 公用(叔)

「公用(叔)」은 《方鼎》에 나오는 「叔」과 동일 인물이며, 單公의 셋째 아들로 爵位는 「公」이다. 「公用(叔)」은 成王을 보좌하던 重臣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方鼎》은 成王時期的 器物이다.

21) 《爾雅》：“勤，勞也。”

22) 《詩·周頌·賚》：“文王既勤止(之)，我膺受之。”

(2-2) [316-47]



1) 徠(仇)匹

「徠」는 ‘근면하다’는 의미이다²³⁾. 「匹」은 ‘협력하다’는 뜻으로 《爾雅》에서는 ‘합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였으며²⁴⁾, 《廣雅》에서는 ‘짜지어 주다’로 풀이하고 있다²⁵⁾. 여기에서 「徠匹」은 ‘힘껏 도와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成受大令(命)

「成」은 「誠」으로 환독하며, “成受大令(命)”은 ‘진실로 하늘의 명을 받들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3) [48-417]



1) 方狄

「方」은 《廣雅》에서는 ‘시작하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²⁶⁾. 「狄」은 「逃」으로 ‘멀다·아득하다’는 의미이다²⁷⁾. 《金文編》에서도 《說文》에 따라 「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先秦 文獻에서는 「剔」으로 해석하고 있다. 「剔」

23) 《爾雅·釋詁》：“勞、來、強、事、勤也。”

24) 《爾雅》：“匹，合也。”

25) 《廣雅》：“匹，配、辨也。”

26) 《廣雅·釋詁》：“方，始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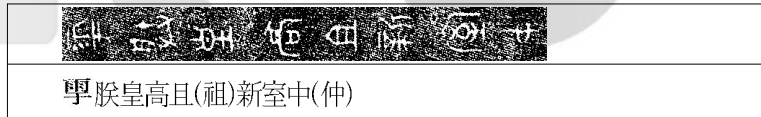
27) 《說文》：“遠也”、《說文通訓定聲·解部》：“狄，假借爲逃。”

은 ‘다스리다’는 의미로, ‘뺨를 바르다’는 본래의 의미에서 ‘깎다·자르다’는 의미로 引伸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引伸된 의미가 ‘다스리다’이다. 그러므로 이 銘文에서의 「方狄」은 ‘다스리기 시작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方」을 ‘方國’으로 해석하고, 「方狄」을 ‘狄方’이란 의미로, 《詩經》에 자주 나오는 ‘玁狁’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명문에서는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2) 不膏(享)

「膏」은 「享」으로 ‘제사’를 가리키는 말로, 「不膏」은 ‘제사를 지내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說文》에서 「享」은 ‘바치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으며²⁸⁾, 先秦 文獻에서도 ‘바치다’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보인다²⁹⁾. 그러므로 「不膏(享)」을 ‘바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명문에서는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5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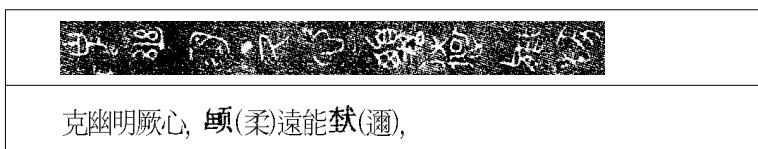
1) 新室中(仲)

李家村에서 출토된 《盩駒尊》銘文 중의 “余用乍(作)朕文考大仲寶尊彝。”에 나오는 「盩」는 다음 문단에 나오는 ‘惠仲盩父’를 가리킨다. 「新室中(仲)」은 그의 아버지인 ‘大仲’을 말한다. 「大仲」은 ‘新室’을 칭한다. 「室」은 본래 ‘집·가옥’을 가리키는 글자로, 재산, 토지, 노예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引伸되어 ‘王朝와 諸侯의 封地’를 「室」이라 칭하기도 하였다³⁰⁾.

28) 《說文》：“享，獻也。”

29) 《詩·商頌·殷武》：“昔有成湯，自彼氐羌，莫敢不來享。”

30) 王輝, 2003



1) 克幽明厥心

「幽」는 《說文》에서 ‘숨기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³¹⁾. 그러나 甲骨文 字形을 보면 許慎의 說은 「幽」자의 본래 의미가 아니다. 「幽」자는 《爾雅》에서 ‘깊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³²⁾. 《牆盤》에서의 “青幽高祖”에서 「幽」자를 ‘은거하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는데(唐蘭 1978), 이는 引伸된 의미이다. 여기에서의 「幽」는 ‘마음이 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幽明」은 ‘마음이 깊고 지혜롭다’는 뜻이다. 「幽」와 「明」은 반의어지만 銘文에서는 「明」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쓰였다.

2) 頤(柔)遠能猷(邇)

「頤」자는 字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爾雅》에서 ‘편안하다·좋아하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³³⁾. 「能」자는 ‘따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柔遠能邇」는 ‘멀거나 가깝거나 잘 다스리다’는 의미이다. 「柔遠能邇」는 周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로 《詩經》 등 先秦 文獻과 金文에 그 용례가 보인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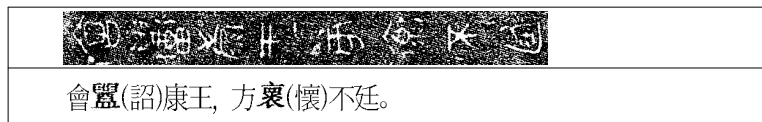
31) 《說文》：“幽, 隱也。”

32) 《爾雅·釋詁》：“幽, 微也。”、《爾雅·釋言》：“幽, 深也。”

33) 《爾雅·釋詁》：“柔, 安也。”

34) 《詩·大雅·民勞》：“柔遠能邇, 以定我王。”、朱熹《詩集傳》云：“柔, 安也。能, 順習也。”、《尚書·顧命》：“柔遠能邇, 安勸小大庶邦。”

(3-3) [6①-6⑧]



1) 會盟(詔)康王

「會」자는 《說文》과 《爾雅》에서 ‘합하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³⁵⁾ 「會盟(詔)康王」은 ‘사방 여러 나라들이 康王에게 朝會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 方褒(懷)不廷

「褒」는 「懷」의 通假字이다. 《爾雅》에서 「懷」는 ‘오다’로 풀이하였다³⁶⁾. 혹은 「褒」을 「鬼」로 해석한다면 「方褒」은 ‘鬼方’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不廷」은 「不庭」으로 쓸 수 있으며, 「庭」은 신하가 조정에서 예를 갖추어 왕을 섬기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不廷」은 ‘周나라를 섬기지 않는 것’이나 ‘周나라를 섬기지 않는 邦國을 뜻하는 것으로, 先秦 文獻에도 그 용례가 자주 보인다³⁷⁾. 이러한 해석은 康王 시기의 시대상황과 부합되는 것이다³⁸⁾. 「不廷」은 上古시기에 자주 사용하던 말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오랑캐가 왕조와 관계가 소원하거나 배반을 해서 복종하지 않게 된 것을 나타낸다. 「方褒不廷」과 이전 문장의 「方狄不享」은 의미가 서로 비슷하나 用字가 다른 경우이다. 아마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用字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西周 中期와 末期의 金文은 修辭에 매우 치중하여 문학적 색채가 매우 농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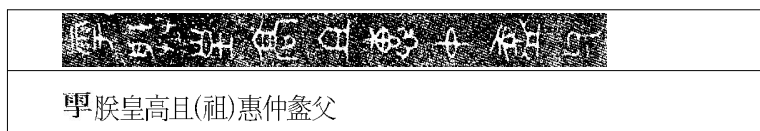
35) 《說文》：“會，合也。”、《爾雅·釋詁》：“仇、偶、匹、會，合也。”

36) 《爾雅》：“懷，來也。”

37) 《詩·大雅·韓奕》：“韓不庭方，以佐戎辟。”、朱熹《詩集傳》云：“不庭方，不來庭之國也。”、《左傳·隱公十年》：“以王命討不庭。”、杜預注：“下之事上皆成禮于庭中。”、楊伯峻注：“庭，動詞，朝于朝庭也。”

38) 《史記·周本紀》：“康王即位，徧告諸侯，宣告以文武之業以申之，作《康誥》。故成康之際，天下安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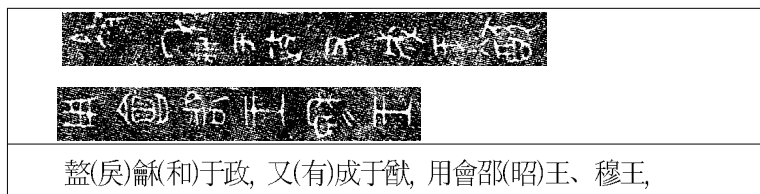
(4) [69-617]



1) 惠仲盩父

「惠」는 諡號이며, 「仲」은 行列을 가리킨다. 「父」는 才德을 겸비한 남자를 가리키는 美稱이다. 이 銘文의 앞에 나온 單公、公叔、新室仲 등은 모두 諡號나 美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惠仲盩父 이후로는 비록 諡號는 사용하고 있지만 美稱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惠仲盩父가 單氏 家族 先祖 중에서 비교적 名望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3년에 楊家村의 같은 지역에서 발굴된 李家村 盩器 중에서 《盩駒尊》 銘文 중에 周王이 盩에게 땅아지 두 필을 하사한 내용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惠仲盩父와 《盩駒尊》의 盩는 동일 인물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盩器는 昭、穆 시기의 기물에 속하는 것으로 孝、夷 시기의 기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2) [71-712]



1) 盩(戾)餽(和)于政

“盩(戾)餽(和)于政”은 《史牆盤》에서도 보이는데, 「戾」의 金文 자형은 從幺 從幸從夂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史牆盤》과 같이 발굴된 8호 鐘에는 같은 어구에 從皿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자형이 보인다. 從皿의 글자는 《說文》의 弦部에 수록되어 있고, “讀若戾”라고 注音되어 있어 이 글자의 讀音이 「戾」와 같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戾」자는 「定」, 즉 ‘安定’이라는 뜻이다³⁹⁾. 「斿」는 「和」의 初文으로 ‘平和·和協’이라는 뜻으로 쓰였다⁴⁰⁾.

“斿(戾)斿(和)于政”은 銘文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으로 ‘안정적이고 화합하는 정치를 하다’는 의미이다.

2) 又(有)成于猷

「成」은 《說文》에서 ‘이루다’는 의미로 풀이하였으며⁴¹⁾, 「猶」는 ‘도모하다’는 의미이다⁴²⁾. 「猶」는 ‘도모하다’는 의미⁴³⁾ 외에도 ‘道’라는 뜻, 즉 ‘禮’라는 의미⁴⁴⁾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又(有)成于猷”는 ‘일을 도모하는 데 뛰어나다’ 또는 ‘禮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뛰어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銘文의 내용을 통해서 惠仲蠡父는 武將일 뿐만 아니라 文治에도 참여하여 그 지위가 朝廷의 大臣들에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⁵⁾.

(4-3) [7⑬-8③]



1) 盜政(征)四方

「盜」는 字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說文》에서 「盜」자는 「𠂔」형

39) 《詩·大雅·柔桑》：“民之未戾”，毛傳：“戾，定也。”

40) 全廣鎮, 1999

41) 《說文》：“成，就也。”

42) 《爾雅》：“猶，謀也。”

43) 《尚書·盤庚上》：“各長于厥居，勉出乃力，聽予一人之作猶。”《孔傳》：“盤庚勅臣下，各思長之于其居，勉盡心出力，從遷徙之謀。”

44) 《詩·小雅·巧言》：“秩秩大猷，聖人莫之。”鄭玄箋：“猶，道也。大道，治國之禮法。”

45) 王輝, 2003

태이며, 「次」는 籀文과 동일한 「次」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秦公縛, 鍾의 銘文중의 “盜百蠻, 具卽其服”을 보면 「盜」는 「盜」의 異體字로 보아서 「盜」를 「討」로 환독할 수 있다(王輝 2003). 그러나 李學勤(2003)은 「延」으로 환독해서, 「盜政(征)」은 「延政」으로 보아 ‘연속적으로 시행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후자를 따라 “盜政(征)四方”은 ‘연속적으로 사방을 다스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廛(踐)伐楚荆(荊)

이 문장은 《牆盤》의 “廣敵(能)楚荆”과 같다. 「廛伐」은 ‘공격하여 토벌하다’는 의미이다. 「楚荆」은 昭王이 정벌한 지역이 楚나라 뿐이 아니었고, 虎方 등도 있었으며 광대한 楚荆地區를 포괄하였다고 한다. 昭王, 穆王시기에 周왕실은 여러 차례 주변 국가를 정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楚荆정벌이 가장 유명하다⁴⁶⁾. 惠仲盞父는 昭王과 穆王에게 중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昭王이 楚를 정벌하는 전쟁에도 참가했었다.

(5) [84-810]



1) 零(靈)白(伯)

「零」은 「靈」의 通假字로 쓰였다. 「靈」은 單伯의 諡號이다.

46) 《史記·周本紀》：“昭王之時，王道微缺，昭王南巡獲不返，卒于江上。”、《初學記》7引《紀年》曰：“昭王十六年，伐楚荆，涉漢，遇大兕。”、《太平御覽》874引《書紀年》曰：“周昭王末年，夜有五色光貫紫微。其年，王南巡不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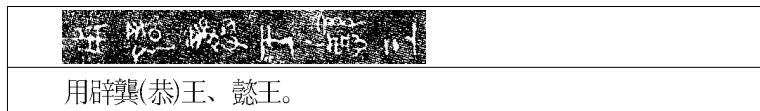
2) 睿明

「睿明」의 「睿」은 「靈」으로 환독하므로(于豪亮), 「靈明」을 말하며 ‘총명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不𡗗(墜)服

「𡗗」는 「墜」자의 通假字로 쓰였다. 「墜」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림’을 뜻하는데⁴⁷⁾, 여기에서는 ‘職務에 대만하고 충실하지 않음’이라 해석할 수 있다. 「不𡗗(墜)」는 《毛公鼎》、《井侯鼎》、《克鐘》 등의 銘文에도 보이며, ‘대만하지 않고 勤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不𡗗(墜)服” 중의 缺字는 「于」로 추정된다⁴⁸⁾. 「服」은 ‘服務’의 뜻으로 쓰였다⁴⁹⁾. ‘관직에 따른 직분’이라 해석할 수 있다. 《尚書》 등에서 보이는 「外服」과 「內服」은 ‘지방관리(外官)’와 ‘중앙관리(京官)’를 각각 의미하고 있는데⁵⁰⁾, 여기에서의 「服」 역시 이와 같은 뜻이다. 「于服」은 곧 ‘직분에’란 뜻으로 해석된다.

(5-2) [9②-9⑦]



1) 用辟龔(恭)王、懿王

「辟」은 金文에서 ‘法⁵¹⁾、治⁵²⁾、理⁵³⁾’로 해석된다. 여기에서는 ‘임금을 섬기

47) 《書·君奭》：“殷既墜厥命，我有周既受。”

48) 李學勤, 2003

49) 《爾雅·釋詁》：“服，事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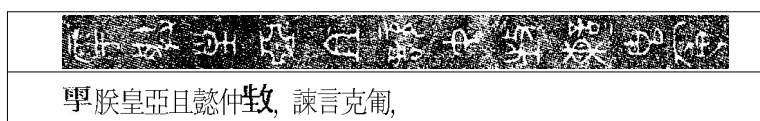
50) 楊樹達(1983:78)은 “服”을 “外服內服，卽外職內職，猶後世言外官京官也。”라 풀이하였다.

51) 《爾雅·釋詁》：“辟，法也。”

52) 《尚書·金縢》：“我之弗辟，我無以告我先王。”陸德明釋文：“辟，治也。”

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用辟龔(恭)王、懿王”은 ‘共王과懿王을 섬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 [98-101]



1) 亞且懿仲敎

《牆盤》銘文 중의 “亞祖祖辛”은 高祖、烈祖、乙祖 등과 상대되는 의미이다. 「亞」는 「次」를 말하는 것이며⁵⁴⁾, 亞祖란 次祖를 뜻한다. 즉 銘文에서는 ‘祖父’를 가리키고 있다. 「懿仲」은 亞祖를 칭하는 것이지 高祖나 遠祖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敎」자는 《說文》에서 ‘농다’는 의미이며 義符인 「攴」과 聲符인 「𠂔」의 구조의 글자로 풀이하고 있다. 曾侯乙墓竹簡 중에 「𨇗車」, 「乘𨇗」, 「少𨇗」⁵⁵⁾ 등의 「𨇗」을 「廣」으로 환독하므로, 「敎」도 「廣」으로 환독할 수 있다. 「敎」은 懿仲의 이름이다.

2) 諫言克匍

「諫」은 《說文》에서 ‘증명하다’로 풀이하고 있으나⁵⁶⁾, ‘바르다⁵⁷⁾·直言으로 사람을 각성시키다’는 의미도 있다⁵⁸⁾. 「諫」자를 許慎과 鄭玄은 「正」이라 풀이하지만, 今本 《說文》에는 「証」으로 풀이되어 있다. 이는 후대 학자들이 잘못 개정한 것으로, 이 銘文의 「諫言」은 ‘직언을 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53) 《玉篇》：“辟, 理也。”

54) 《爾雅·釋言》：“亞, 次也。”

55) 《左傳·宣公十二年》에서 乘廣、左廣、右廣은 모두 軍車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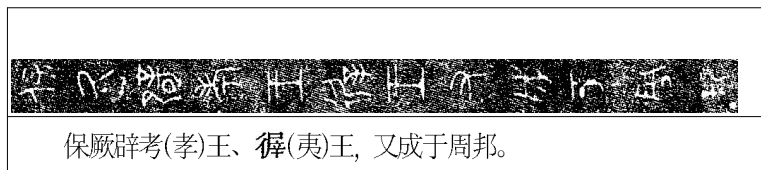
56) 《說文》：“諫, 証也。”

57) 《廣雅·釋詁》：“諫, 正也。”

58) 《廣韻》：“諫, 直言以悟人也。”《周禮·地官·保民》：“保氏掌諫王惡, 而養國子以道。”鄭玄注：“諫者, 以禮義正之。”

「匍」자는 엷드린 모양으로 ‘힘을 다하다’는 의미이다⁵⁹. “諫言克匍”는 ‘禮로서 권고하다’로 해석된다.

(6-2) [10②-10⑬]



1) 保厥辟考(孝)王、彳(夷)王

「保」자는 ‘맡기다’는 의미이며⁶⁰, 「辟」은 ‘君’이라는 의미이다⁶¹. 「保厥辟」은 ‘협조하다’는 의미로서, 孝王과 夷王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考」와 「孝」는 金文에서 두 개의 다른 글자가 분명하지만, 이 銘文에서 「考」자는 「孝」의 通假字로 쓰였다. 「彳」자는 「遲」자로 金文에서 자주 보이지만 여기에서 音轉으로 「夷」의 通假字로 쓰였다.

2) 又成于周邦

「又」자는 「有」의 通假字로 ‘있다’는 의미이며, 「成」자는 ‘이루다’는 뜻으로⁶² ‘공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周나라 사람들은 ‘周國’이라고 칭하지 않고 ‘周邦’이라고 했으며, 기타 諸侯들은 「國」자를 사용하였다. 이는 당시 周나라 사람들에게 「邦」이 「國」보다 더 높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³.

59) 《詩·大雅·生民》：“誕實匍匐。”《詩·北風·谷風》：“凡民有喪，匍匐救之。”鄭玄箋：“匍匐，言盡力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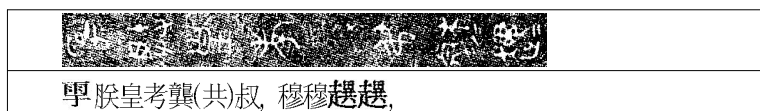
60) 《廣韻》：“保，任也。”

61) 《爾雅》：“辟，君也。”

62) 《說文》：“成，就也。”

63) 彭曦,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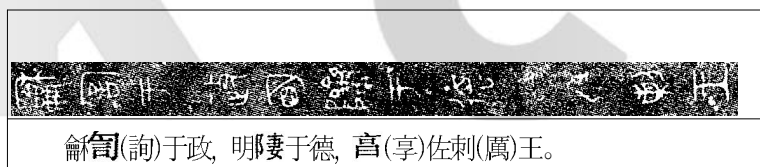
(7) [10④-11④]



1) 穆穆翼翼

「穆」자는 ‘화목하다·친절하다’는 의미 또는 ‘공손하다·엄숙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⁶⁴. 先秦 文獻에서 나오는 「穆」은 「蓐」이 假借된 경우이다⁶⁵. 「翼翼」은 「翼翼」으로 先秦 文獻에 쓰였으며⁶⁶, 「翼翼」은 《爾雅》에서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풀이하고 있다⁶⁷.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穆穆翼翼”은 ‘공손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2) [11⑤-11⑥]



1) 夬(詢)于政

「夬」는 《說文》에서 義符인 「夬」과 聲符인 「禾」로 이루어진 글자로 「和」와 같은 발음으로 읽히며, ‘조화하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⁶⁸. 즉 ‘협조하다’는 의미이다. 「夬」은 《說文》에서 ‘놀랐을 때 내는 소리’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큰 소리’라는 의미로 인식되었다⁶⁹. 여기에서 「夬」은 ‘넓고 크다’는

64) 《說文》：“穆，禾也。”、《爾雅·釋訓》：“穆穆，敬也。”

65) 段玉裁, 《說文解字注》

66) 《詩·大雅·大明》：“小心翼翼”

67) 《爾雅·釋訓》：“翼翼，恭貌。”

68) 《說文》：“夬，調也，從夬，禾聲，讀與和同。”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銘文의 “**詢**(詢)于政”은 ‘큰 정치를 하도록 협조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明**婁**于德

「**婁**」는 《集韻》에서 「躋」라고 풀이하였으며⁷⁰⁾, 《說文》에서는 「躋」을 ‘오르다’로 해석하고 있다⁷¹⁾. 즉 ‘오르다’·‘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婁**于德」은 先秦 文獻에 나오는 「据于德」과 같은 의미⁷²⁾로 ‘德의 경지에 오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明婁**于德”은 ‘德性이 高尚하다’ 또는 ‘德의 경지에 오르다’는 의미이다. 周나라 사람들은 德을 중시해서 德이 있는 사람만이 上下를 화목하게 할 수 있고 國家의 安寧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여겼다.

3) **享**(享)佐**刺**(厲)王

「享」은 《說文》에서 ‘바치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⁷³⁾. 「刺」는 「厲」로 환독한다. 이 명문에서 “**享**(享)佐**刺**(厲)王”은 ‘몸을 바쳐 厲王을 보좌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8) [11⑩-12⑦]


逯肇(纘)朕皇祖考服,

69) 《說文》：“**詢**, 駭言聲。”, 段注：“引伸爲**緝**大聲。”

70) 《集韻》：“**婁**, 躋也。”

71) 《說文》：“躋, 登也。”

72) 《論語·述而》：“志于道, 据于德, 依于仁。”

73) 《說文》：“享, 獻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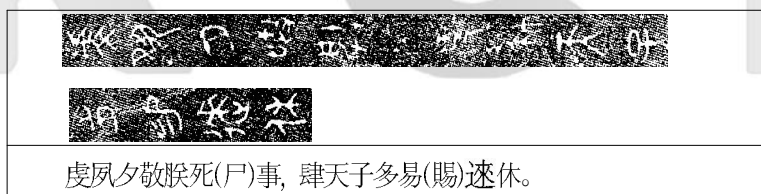
1) 𦘒(纘)

「𦘒」은 纘, 纘과 같은 형태로 甲骨文에서 자주 보이는 문자이다. 《甲骨文字典》에서는 「𦘒」를 「屎」로 해석하였으나, 이 銘文에서는 《牆盤》의 경우 처럼 「屨」로 해석해야 한다. 「屨」은 《玉篇》에서 「纘」의 古文으로 풀이하고 있다. 《集韻》에서 「纘」은 고대에 「屨」로 쓰였다고 해석하였다⁷⁴⁾. 또한 「纘」은 「纘」의 通假字이다. 《說文》에서 「纘」은 ‘계승하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⁷⁵⁾. 그러므로 「𦘒」은 ‘계승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服

「服」은 《爾雅》에서 ‘일’이라 해석하였으며⁷⁶⁾, 《廣韻》에서는 ‘일에 종사하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⁷⁷⁾. 이 銘文에서는 ‘職位’라고 해석된다.

(8-2) [128-134]



1) 度夙夕敬朕死(尸)事

「度」은 《爾雅》에서 ‘굳다·단단하다’란 의미로 풀이하였으나⁷⁸⁾, 金文에서는 주로 ‘공손하다’는 의미로 쓰였다(陳初生 2004:527). 「度」은 단독으로 쓰인 경

74) 《集韻》：“纘, 古作屨。”

75) 《說文》：“纘, 繼也。”

76) 《爾雅》：“服, 事也。”

77) 《廣韻》：“服, 服事。”

78) 《爾雅》：“度, 固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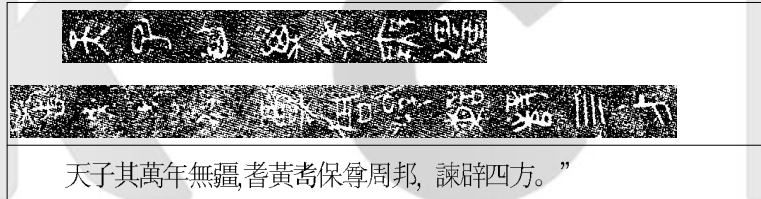
우도 있고⁷⁹⁾, 「虔敬」、「虔恭」、「虔共」 등의 형태로도 쓰였다⁸⁰⁾. 의미는 단독으로 쓰였을 때와 같이 ‘공손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夙夕」은 ‘아침부터 밤까지’를 가리킨다. 「敬」은 《說文》에서 ‘삼가다’로 해석하였는데⁸¹⁾ 즉 ‘스스로 경계하여 태만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尸」는 《爾雅》에서 ‘주관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2) 肆

「肆」는 여기에서 因果關係를 나타낸다. 《爾雅》에서도 「肆」는 ‘그러므로’라고 풀이하였다⁸²⁾.

(9) [135-145]



1) 耆黃耇

「耆」는 《說文》에서 「늙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⁸³⁾. 《爾雅》에서도 「나이가 많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⁸⁴⁾. 「耇」는 《釋名》에서 ‘나이 60’이라 말하고 있으며⁸⁵⁾, 《爾雅》에서는 ‘장수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⁸⁶⁾. 고대에 사람

79) 《師望鼎》：“虔夙夜出內(納)王命。”

80) 《蔡侯尊》：“元年正月初吉辛亥，蔡侯虔共(恭)大命。”、《秦公簋》：“虔敬朕祀。”

81) 《說文》：“敬，肅也。”

82) 《爾雅》：“肆，故也。”

83) 《說文》：“耆，老也。”

84) 《爾雅》：“耇，長也。”

85) 《釋名·釋長幼》：“六十曰耇。”

들은 젊어서는 머리가 검지만 나이가 들면 백발이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황색이 된다고 여겼다⁸⁷⁾. 그러므로 「黃耆」란 長壽를 상징하였다. 여기에서 “耆黃耆”는 ‘장수하다’는 뜻으로 쓰였고, 지금의 ‘건강하게 장수하다’는 의미와 같다. 「尊」은 《玉篇》에서 「定」으로 해석하였는데⁸⁸⁾, 《說文》에서 「定」은 ‘편안하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⁸⁹⁾.

2) 諫辟

이 문장은 《番生簋》의 “用諫四方”과 같은 의미이다. 「諫」은 《說文》에서 ‘바로잡다’는 의미로 풀이하였으며⁹⁰⁾, 「辟」은 ‘도리·법’이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⁹¹⁾.

(10) [14⑥-15④]



1) 王若曰

「王若曰」은 ‘왕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란 뜻이다. 여기에서 「王」은 西周 後期の 宣王을 가리킨다. 「若」자의 甲骨文 字形은 𠄎、𠄎 등의 형태로 나타

86) 《爾雅》：“耆，壽也。”




87) 《論衡·無形篇》：“人少則髮黑，老則髮白，白久則黃；髮黃而膏有垢，故《禮》曰“黃耆無疆”，《詩·閟宮》、《書·秦誓》有言黃髮者。”

88) 《玉篇》：“尊，定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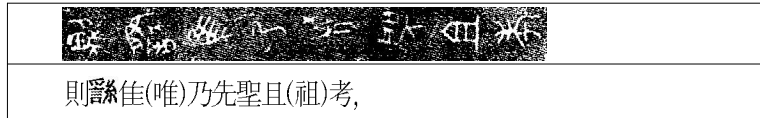
89) 《說文》：“定，安也。”

90) 《說文》：“諫，証也。”

91) 《說文》：“辟，法也。”

나며, 金文에서는  (孟鼎),  (克鼎) 등으로 甲骨文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口」가 부가된  (毛公鼎)의 형태도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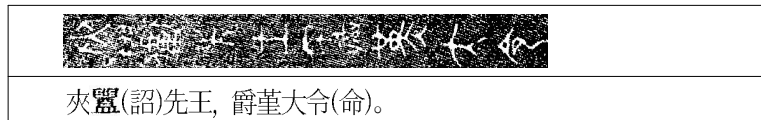
(10-2) [15⑤-15⑫]



1) 晉絲

「晉絲」는 「絲」로 쓰이기도 한다. 《金文編》에서는 「晉絲」를 ‘發語詞’로 풀이하였다⁹²⁾. 金文의 「則晉絲佳」은 先秦 文獻의 「則佳」用法과 유사하다⁹³⁾. 선진 문헌에서 「則佳」는 전후 문장의 因果關係를 강조하는 작용을 한다. 「則晉絲佳」의 「晉絲」、「佳」는 뒤에 오는 문장의 문장성분을 강조하는 것이며, 「則」은 전후 문장의 順承關係를 나타낸다. 「晉絲佳」는 古書 중의 「迪惟」에 상당하며, 「晉絲」、「迪」은 모두 어기를 강조하는 虛辭이다.

(10-3) [15⑬-16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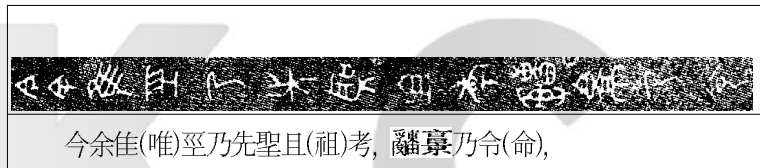
92) 《金文編》：“晉絲，發語辭。絲《說文》所無，《說文通訓定聲》据偏旁及《韻會》補爲晉絲之重文。”

93) 《書經·多士》：“有夏不適逸，則惟帝降格”、《多方》：“爾不克勸忱我命，爾亦則惟不克享，凡民惟日不享。爾乃惟逸惟頹，大遠王命，則惟爾多方探天之威” 이 두 문장의 「則惟」는 앞의 문장을 잇는 작용을 하며 전후 문장의 의미를 더욱 밀접하게 해주고 있다.

1) 爵董(勤)

「爵董(勤)」은 ‘받들어 힘써 일하다’의 뜻이다. 여기에서의 「爵」은 ‘받들다’는 뜻이다. 「爵」은 두 손(卪)으로 술잔을 받들고 있는 字形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奉」의 古字로 여기는 說⁹⁴⁾이 비교적 타당하다. 그러나 「勞」로 환독하는 경우도 있다⁹⁵⁾. 「爵」은 金文에서 자주 보이는 글자로 「爵」이 들어간 文例는 두 가지 있는데, 「爵勤大命」과 「有爵于周邦」이 있다. 「董」은 ‘힘써 일하다’란 뜻의 「勤」의 通假字로 쓰였다⁹⁶⁾.

(11) [16④-16⑤]



1) 丕

이 문장은 《毛公鼎》의 “余唯肇丕先王命”과 같은 구조이다. 「丕」은 「經」과 같으며, ‘따르다’는 의미이다.

2) 鬻(鬻)

「鬻」은 「種」이라는 의미이며, 「種」은 《說文》에서 ‘보태다·더하다’는 의미라고 풀이하였다⁹⁷⁾. 「鬻」자는 「庸」으로 읽으며 ‘사용하다’는 뜻이다. 「鬻(鬻)」은 金文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重用하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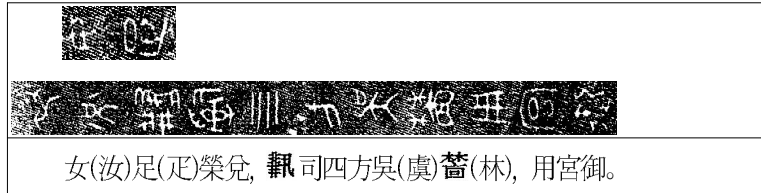
94) 郭沫若, 1962

95) 《何尊銘文解釋》：“爵與勞音近……似當仍讀作勞。”

96) 《說文·力部》：“勤，勞也。從力，董聲。”

97) 《說文》：“種，增益也。”

(11-2) [16⑬-17⑭]



1) 女(汝)足(疋)榮兌

「足」자는 古文에서 「胥」·「疋」은 같은 글자로 쓰였다. 이 銘文에서는 「疋」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즉 「胥」와 같다고 할 수 있다. 《廣雅》에서 「胥」는 ‘돕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⁹⁸⁾. 「榮」은 國族 이름이며, 「兌」은 人名이다. 「兌」는 西周 末期 사람으로 宣王 初期에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2) 鞞

「鞞」은 金文에서 자주 보이는데,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駿·繼·并·共 등 여러 견해가 있지만, 字形의 형태가 손으로 두 개의 물건을 잡고 있고 「井」을 聲符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兼」의 初字로 판정된다.

3) 吳(虞)蓄(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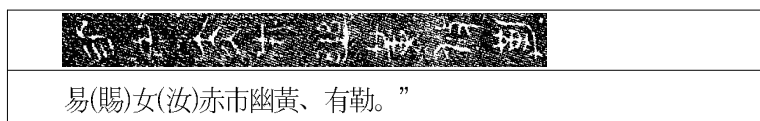
「吳」는 「虞」로 환독한다. 「虞」는 ‘官名’으로 西周시기에 처음으로 설치된 관직이며, 林業과 動物을 관리하는 직위를 가리킨다. 「蓄」은 ‘農業’을 가리킨다. 「虞林」의 「虞」는 周나라 때 山林을 맡은 벼슬아치, 즉 산림간수를 가리키는 관직인 ‘山虞’를 가리키며, 「林」 역시 산림을 맡은 벼슬인 ‘林衡’을 가리킨다⁹⁹⁾. 혹자는 「蓄」을 「廩」으로 환독하기도 하지만 타당하지 않다. 山虞와 林衡은 서로 관련이 있는 관직이지만, 廩人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虞」와 「林」은 관련이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虞林」은 全國의

98) 《廣雅》：“胥，助也。”

99) 劉源, 2003

林木과 山澤動物을 관장하는 것으로 林業 계통의 수장으로 보인다.

(12) [17⑫-18②]



1) 易(賜)女(汝)赤市

「易」는 「賜」의 通假字로 쓰였다. 「市」은 '古代 祭祀 때 입는 옷'으로 무릎을 덮는 붉은 색의 예복을 가리킨다. 典籍에서는 「芾」로 쓰기도 한다¹⁰⁰⁾. 《番生簋》에서는 「朱市」라고 쓰였다. 先秦文獻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쓰인 용례가 자주 보인다¹⁰¹⁾.

2) 幽黃

「幽」는 「黝」의 假借字로 '검은색'을 가리킨다. 金文에서 「幽」는 「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黃」은 '佩玉'을 가리킨다. 본래 「黃」은 사람이 옥을 지니고 있는 모양으로¹⁰²⁾, 「黃」은 典籍에서 「珩」 또는 「衡」으로도 쓰였다¹⁰³⁾. 그러나 「黃」은 '폐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祭服의 蔽膝이라는 설도 있다¹⁰⁴⁾.

3) 攸勒

「攸勒」은 《毛公鼎》、《柳鼎》에서도 이 銘文의 字形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泉伯斝》에서는 「攸勒」으로 쓰였으며 《詩·大雅·韓奕》에서는

100) 《詩·曹風·侯人》：“彼其之子，三百赤芾。”

101) 《詩·小雅》：“赤芾在股，邪幅在下。”鄭玄箋：“芾，太古蔽膝之象也。冕服謂之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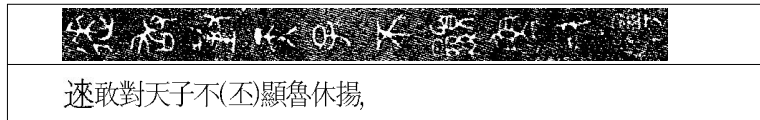
102) 徐中舒, 1990

103) 《禮記·玉藻》：“一命緼韍幽衡，再命赤韍幽衡，三命赤韍葱衡。”、《詩經·小雅·采芣》：“服其命服，朱芾斯皇，有瑱葱珩。”

104) 唐蘭, 1976

「儻革」으로 쓰였다. 「攸」는 「鑿」의 通假字로 쓰였다. 「鑿」는 말의 주둥이 부분에 설치하는 고삐를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장식물이 달린 화려한 고삐’라 해석할 수 있다¹⁰⁵. 「勒」은 말의 주둥이 부분에 씌워 재갈의 역할을 하는 기물을 가리킨다¹⁰⁶.

(13) [18③-18⑫]



1) 對

「對」는 의미가 확대 적용되어 ‘답하다·보답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爾雅》에서도 「對」를 이처럼 풀이의 용례가 보인다¹⁰⁷. 그런데, 「對」는 뒤의 「揚」과 결합하여 ‘말들어 널리 宣揚하다’란 뜻을 지니는데 銘文에서 자주 등장한다¹⁰⁸. 《陳侯因咨罇》명문 “合揚厥德” 중의 「合」은 「答」의 假借로 쓰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對」가 「答」의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2) 魯休

「魯」는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先秦 文獻에서는 「旅」로 쓰이기도 한다¹⁰⁹. 「休」는 造字 木義와는 달리 「美」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¹¹⁰. 여기에서는

105) 《說文·金部》: “鑿, 鑿也。一曰轡首銅。從金, 攸聲。” 段玉裁《說文注》: “轡首銅者, 以銅飾轡首也。”
 106) 《說文·革部》: “勒, 馬頭絡銜也。從革, 力聲。”
 107) 《爾雅·釋詁》: “合、會, 對也。”
 108) 西周 初期 金文에서는 “對”와 “揚”이 單獨으로 사용되었으며, 連用되는 경우는 西周 中期·後期 이후부터이다(屈萬里1992).
 109) 《尚書·序》: “旅天子之命”
 110) 《爾雅·釋詁》: “休, 美也。” 又, 《詩·豳風·破斧》: “哀我人斯, 亦孔之休。” 毛傳: “休, 美也。”

왕의 아름다운 덕, 즉 ‘美德’ 또는 ‘業績’ 등과 같이 周王의 德을 칭송하는 수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休」를 ‘왕이 내린 하사품’으로 해석하기도 한다¹¹¹⁾.

(13-2) [1813-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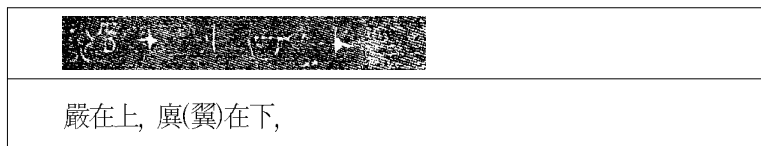
1) 追高(享)孝

「追高(享)孝」는 「追孝」로, ‘先祖의 뜻을 이어받다’는 의미이다¹¹²⁾. 先秦 文獻과 金文에 그 용례가 자주 보인다¹¹³⁾.

2) 前文人

「前文人」은 前世에 文德이 있는 先祖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遯의 先祖를 가리킨다. 「前文人」과 「先王」、「皇考」는 같은 형식의 표현이다.

(14) [1913-2011]



1) 嚴在上

「嚴」은 ‘위엄’을 나타내지만, 金文에서는 ‘문덕이 있는 先祖의 신령’을 의미하

111) 陳初生, 1989

112) 《尚書·周書·文侯之命》：“汝肇刑文武……追孝于前文人。”，偽孔傳：“繼先祖之志爲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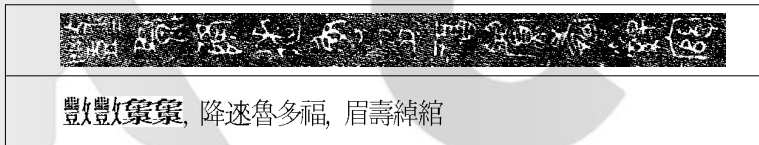
113) 《尚書·周書·文侯之命》：“用會紹乃辟追孝于前文人。”、《兮仲鐘》：“其用追孝于皇考己伯。”

는 것으로 아버지 代를 가리킨다¹¹⁴⁾. 여기에서는 할아버지 代나 아버지 代의 先人을 말하는 것이다. 周나라 사람들은 先祖는 모두 위엄있게 神과 함께 하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在上」이라 표현했다. 그러므로 「上」은 ‘천상’·‘하늘’을 가리킨다.

2) 虞(翼)在下

「虞」는 「翼」으로 환독한다. 「虞」는 ‘공경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며¹¹⁵⁾, 魏晉시기 이후부터는 「翼」이 「虞」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이 銘文에서 「翼」은 ‘돌봐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嚴在上」의 「嚴」과 「虞(翼)在下」의 「虞」는 모두 ‘공경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14-2) [202]-2012]



1) 豐豐彙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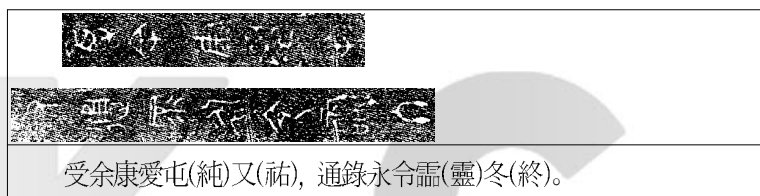
「豐」은 「豐」으로 ‘성대하다’·‘풍성하다’는 의미이다. 「彙」은 義符인 「泉」과 聲符인 「隹」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說文》에 수록된 「彙」과 같으며¹¹⁶⁾, 「豐豐彙彙」은 雙聲疊語로 「蓬薄」、「旁薄」와 같은 의미로 ‘매우 풍성함’을 나타낸다¹¹⁷⁾.

114) 《易·家人》：“家人有嚴君焉，父母之謂也。”
 115) 《玉篇》：“虞，謹敬也。”《廣韻》：“虞，恭也，敬也。”段玉裁《說文解字注》：“虞，魏晉後用爲翼。”
 116) 《說文》：“彙，讀若薄。”
 117) 唐蘭, 1986

2) 眉壽綽綽

「眉壽綽綽」은 金文에서 자주 보이는 구절로 「綽綽眉壽」를 말한다. 「綽綽眉壽」는 당시에 ‘長壽를 기원’하는 말로 《說文》에서는 「綽緩」이라고 하고 있으나, 金文에서는 「綽綽」이라고 쓰였으며 「綽」은 고대의 「緩」자이다. 「綽綽」은 《詩經》과 《書經》에서는 「寬綽」으로 쓰였으며,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늘어 길게 하다’는 의미이다.

(14-3) [2013-21⑦]



1) 通錄

「通」은 ‘막힘이 없다’·‘무궁하다’는 의미이다¹¹⁸⁾. 「錄」은 「祿」으로 환독하며, ‘福’이란 뜻이다¹¹⁹⁾. 그러므로 「通錄」은 ‘多福’으로 해석된다.

2) 永令(命)

「永令(命)」은 ‘長壽하다’는 의미이다. 古代 사람들은 國家의 興亡과 사람의 生死는 하늘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先秦 文獻에서 「大命摯」、「大命近」、「遐終命」、「中絕命」 등은 모두 멸망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유일하게 「永令(命)」만이 ‘하늘의 도움으로 장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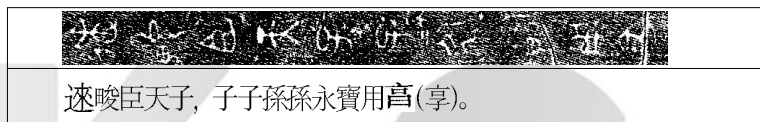
118) 《周易·繫辭上》：“往來不窮謂之通。”

119) 《說文·一上》：“祿，福也。”、《詩·商頌·玄鳥》：“殷受命咸宜，百祿是何。”，鄭玄箋：“百祿是何，謂當担負天之多福。”

3) 𩇛(令)冬(終)

「𩇛」은 「令」의 通假字로 쓰였다. 「令」은 先秦 文獻에서 「善」으로 풀이된다¹²⁰⁾. 「冬」은 「終」의 初文으로 《說文》에서 「終」의 初文은 「𠄎」으로, 本 銘文에 있는 「冬」의 字形과 비슷하다. 또한 두 글자 모두 「糸」를 따르고 있지 않다. 「𩇛冬」은 先秦 文獻에서 「令終」으로 쓰이며 ‘좋은 명성으로 일생을 마치다’는 의미이다¹²¹⁾.

(15) [21⑦-21⑰]



1) 子子孫孫永寶用高(享)

「子」와 「孫」은 중복 부호가 있다. 「寶」는 여기에서 副詞로서 뒤의 「用」을 修飾하고 있으며, ‘보배로이·소중하게’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寶用」은 ‘보배로이 사용하다’란 뜻인데, 周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상이 사용하던 器物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던 盤을 子子孫孫 보전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3. 全文 韓譯

《逯盤》銘文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단락(1-9)에서는 器物 製作者인 逯의 先祖의 事跡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단락(10-12)에서는 逯가 王으로

120) 《詩經·大雅·卷阿》：“如圭如璋，令聞令望。”，鄭玄箋：“令，善也。”

121) 《詩經·大雅·既醉》：“昭明有融，高朗令終。”，鄭玄箋：“以善名終”

부터 冊命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제3단락(13-15)에서는 이러한 것을 기념하여 盤을 제작하였으며 先祖들이 계속해서 逯을 지켜줄 것과 子孫萬代 길이 기념할 것에 대한 誥辭를 기술하고 있다.

(1) 逯曰：“不(丕)顯朕皇高且(祖)單公，**桓桓**(桓桓)克明哲(哲)乎(厥)德，夾**翬**(詔)文王、武王，**達**(達)殷，雁(膺)受天魯令(命)，匍(溥)有四方，並宅厥董(勤)疆(疆)土，用配上帝。

逯가 말하길 “저의 위대하고 영명한 遠祖이신 單公께서는 威嚴있고 英明하시며 賢明하시고 德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單公께서는 文王과 武王을 輔佐하여 殷나라를 도벌하셨습니다. 文王과 武王께서는 크나큰 하늘의 아름다운 命을 기꺼이 받자와, 四方의 諸侯 국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친하를 편안하게 하고, 근면하게 나라를 다스려서 하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2) 學朕皇高且(祖)公弔(叔)，克徠(仇)四成王，成受大令(命)，方狄不**高**(享)，用尊四或(國)萬方。

저의 위대한 遠祖이신 公叔께서는 成王을 輔佐하여 진실로 하늘이 내리신 命을 받자와, 禮義를 모르는 北方 오랑캐를 다스리시어, 四方의 여러 나라를 平定하셨습니다.

(3) 學朕皇高且(祖)新室中(仲)，克幽明厥心，**頤**(柔)遠能**猷**(邇)，會**翬**(詔)康王，方**褒**(懷)不廷。

저의 위대하신 遠祖이신 新室仲께서는 마음이 깊고 지혜로워서, 멀거나 가깝거나 잘 다스리셨습니다. 四方의 諸侯들이 康王을 謁見하였지만, 鬼方은 周나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4) 學朕皇高且(祖)惠仲蠡父，**整**(戾)斲(和)于政，又(有)成于猷，用會**昭**(昭)王、穆王，**濫**政(征)四方，**斲**(踐)伐楚荆(荊)。

저의 위대한 遠祖이신 惠仲蠡父께서는 정치를 안정시키고 조화롭게 하셨으며, 禮로써 나라를 다스리는데 뛰어나서, 昭王과 穆王으로부터 重用되어, 계속해서 四方을 다스리셨습니다. 또한 昭王이 楚荆을 정벌하는 戰爭에도 참여

하셨습니다.

- (5) 𠄎朕皇高且(祖)𠄎(靈)白(伯), 𠄎(麟)明厥心, 不𠄎(隳)口服, 用辟(恭)王、懿王。저의 위대한 遠祖이신 零白께서는 매우 명석하셨습니다. 그 직분에 태만하지 아니하고 충실하시고, 共王과 懿王을 섬기셨습니다.
- (6) 𠄎朕皇亞且懿仲(敎) 諫諫克匍, 保厥辟考(孝)王、𠄎(夷)王, 又成于周邦。저의 위대한 遠祖이신 懿仲(敎)께서는 왕께 直言을 함에 힘쓰셨으며, 孝王과 夷王을 輔佐하여 나라를 다스리시어 周나라에 공로가 있습니다.
- (7) 𠄎朕皇考(共)叔, 穆(穆)越越, 𠄎(詢)于政, 明(明)于德, 高(高)佐刺(厲)王。저의 위대하신 共叔께서는 공손하고 근면하시며, 情事를 능히 조화롭게 하시며, 人品이 고상하시어 몸을 바쳐 厲王을 보좌하셨습니다.
- (8) 逌肇(逌)朕皇祖考服, 虔夙夕敬朕死(尸)事, 肆天子多易(賜)逌休。逌는 祖父와 父親의 職位를 繼承하여, 공손하게 조석으로 스스로 경계하여, 제가 主管하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사옵니다.
- (9) 天子其萬年舞(無)疆, 耆黃耇保尊周邦, 諫辟四方。” 이러한 연유로 天子께서 逌에게 많은 福祿을 하사하셨습니다. 天子께서는 萬年 無疆하시우고, 건강하게 長壽하시어 周나라가 太平하도록 보살피시고, 法으로 天下를 다스리시기를 祈願합니다.”
- (10) 王若曰：“逌, 不(丕)顯文武, 膺受大命(命), 匍有四方, 則(則)佳(唯)乃先聖且(祖)考, 夾(夾)𠄎(詔)先王, 爵(爵)堇大命(命)。” 王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逌는 듣거라! 위대하시고 영명하신 文王과 武王께서 하늘의 命을 기꺼이 받자와, 널리 천하를 보호하시었다. 예전에 그대의 훌륭한 先祖와 先父께서는 先王을 輔佐하여 정성을 다해 大命을 수행했음을 알고 있다.
- (11) 今余佳(唯)丕乃先聖且(祖)考, 逌(逌)乃令(命), 女(汝)足(足)榮兌, 𠄎(虞)司四方吳(虞)𠄎(林), 用宮御。朕은 先王께서 그대의 先祖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대를 重用하여 命을 내리노라.

그대는 榮兌를 도와 나라의 林業과 農業을 管理하여 宮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도록 하라.

(12) 易(賜)女(汝)赤市幽黃、有勒。”

그대에게 赤市, 紺帛은 佩玉, 장식이 달린 고삐, 말 채갈을 하사하노라.”

(13) 逯敢對天子不(丕)顯魯休揚, 用作朕皇且(祖)考寶尊盤, 用追高(享)孝于前文人。

臣 逯는 天子의 이러한 커다란 美德을 보답하고 宣揚하고, 저의 祖父와 父親을 기념하고자 이 보배로운 盤을 만들어서, 文德이 있으신 先祖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결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14) 嚴在上, 虞(翼)在下, 黻黻象象降逯魯多福, 眉壽綽綽, 受余康愛屯(純)又(祐), 通錄永令靈(靈)冬(終)。

하늘에는 文德이 있으신 先祖의 神靈이 계시고, 세상에는 逯가 공손하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선조의 신령께서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逯에게 더욱 많은 福祿을 주시고, 마음 편히 長壽할 수 있게 해주시고, 편안하고 믿음직함을 주시고, 벼슬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15) 逯峻臣天子, 子子孫孫永寶用高(享)。

逯가 오래도록 天子의 臣下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逯의 자손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보배로 삼을 지어다.

靑銅器 銘文의 韓譯은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옮겨야만 考釋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는 의역 보다는 직역에 가깝게 한역하였다.

4. 銘文 내용 분석

4.1 西周시기 王 世系の 완벽한 기술

《逯盤》 銘文에는 周나라 文王부터 逯가 天子라고 칭하고 있는 당시의 왕인

宣王까지 모두 12대에 걸친 周王 世系가 기록되어 있다. 《逯盤》銘文의 周王 世系는 《史記·周本紀》 및 기타 史籍에 기록된 周王의 諡號와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는 《周本紀》가 歷史의 사실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逯盤》은 《史記》의 정확성을 증명하고, 《史記》의 내용을 한층 더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實物資料가 되었다. 다음은 명문에 기록되어 있는 西周 王의 世系를 표로 만든 것이다. 명문에서는 주로 逯의 先祖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逯의 先祖가 각각 어느 王의 신하로서 周나라에 어떤 공을 세웠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西周王世系	逯家族
文王	皇高祖單公
武王	
成王	先高祖公叔
康王	皇高祖新室仲
昭王	皇高祖惠仲盞父
穆王	
恭王	皇高祖零伯
懿王	
考(孝)王	皇亞祖懿仲
緡(夷)王	
剌(厲)王	朕皇考龔叔
宣王(天子)	逯

《逯盤》이 발견되기 전에도 서주 왕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 銘文으로는 《史牆盤》銘文이 있다. 그러나 《史牆盤》에는 文王에서 共王까지의 7대 周王 만이 기록되어 있다. 共王이후 왕에 대한 기록은 《史記》나 先秦 文獻에는 보이지만 실제 出土 文物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逯盤》의 발견으로 共王부터 宣王까지의 기록이 출토 문물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史記》와 先秦 文獻의 기록과 상호 인증하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다.

《逯盤》 명문과 《史牆盤》 명문에서는 周王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史牆盤》에서는 文王에서 共王까지 각 왕을 칭송하는 문장을 먼저 서술하고, 다음에 史牆의 4대 先祖의 공적을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逯盤》 명문에서는 逯의 7대 先祖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각 先祖가 어느 왕을 보좌하여 周나라에 功績을 세웠는가를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逯盤》과 《史牆盤》은 모두 서주 왕 世系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銘文이다. 특히 《逯盤》 명문은 12대 周王의 기록과 당시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逯盤》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4.2 單氏 家族 銅器와의 계련

陝西省 楊家村 일대는 1949년 이후 西周 銅器가 4차례 발굴되었다. 1955년에는 楊家村에서 〈盞方彝〉 2점, 〈盞方尊〉 1점, 〈盞駒尊〉 1점과 〈陶鬲〉 1점이 出土되었다. 1972년에는 〈旗鼎〉 1점이 出土되었으며 1985년 8월에는 西周 末期의 〈逯鐘〉 4점과 〈云雷紋甬鐘〉 2점, 〈窃曲紋甬鐘〉 4점과 〈罇鐘〉 3점이 出土되었다. 2003년 1월에는 〈42年逯鼎〉 2점, 〈43年逯鼎〉 10점, 〈逯盤〉 1점, 〈逯盃〉 1점, 〈叔五父匜〉 1점, 〈單五父壺〉 2점, 〈單叔鬲〉 9점, 〈天孟〉 1점이 出土되었다. 楊家村 일대에서 발굴된 이러한 銅器들은 西周 時期的 單氏 家族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年度	出土 器物
1955	盞方彝、盞方尊、盞駒尊、陶鬲
1972	旗鼎
1985	逯鐘、云雷紋甬鐘、窃曲紋甬鐘、罇鐘
2003	逯鼎、逯盤、逯盃、叔五父匜、單五父壺、單叔鬲、孟

1955년 楊家村에서 出土된 盃器는 逯의 先祖인 惠仲盃父의 器物로 추정한다. 穆王이 『不忘厥舊宗小子』 한 이유로 駒에게 상을 내려서 盃가 이로 인해 大仲을 위해 盃를 제작하였다. 여기에서 大仲은 新室仲을 가리킨다. 郭沫若은 《盃駒尊》銘文 중의 「師處」는 《師遽簋》의 師遽이므로 盃器를 周 懿王時期的 器物로 단정하였으나 《逯盤》銘文에는 명확하게 盃는 穆王時期 인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盃器의 제작시기는 穆王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懿王時期 器物로 단정한 盃器는 穆王時期로 앞당기는 것이 타당하다. 《逯盤》에 逯의 先祖와 周王이 일대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출토되었던 逯의 가족 관련 동기의 斷代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逯盤》의 학술적 가치를 부동의 위치로 끌어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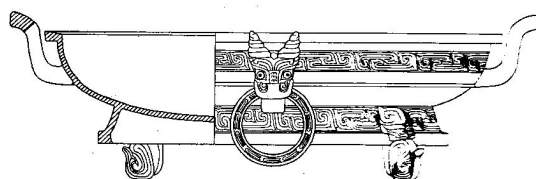
4.3 西周 宣王시기의 標準器

西周 青銅器의 斷代는 銘文의 內容, 器物의 형태, 문양을 통해서 그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逯盤》에는 銘文이 있으며, 銘文 內容 中에는 斷代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당시의 왕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斷代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出土 器物의 형태와 문양의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서 형태와 문양을 통해서도 斷代를 정할 수 있다. 《逯盤》에는 이상의 세 가지 방법으로 완벽하게 器物의 斷代를 확정지을 수 있는 장점을 구비하고 있다. 먼저 銘文의 內容을 보면, 《逯盤》銘文에서 厲王 다음의 王을 天子로 칭하고 있다.

“**學**朕皇考龔(共)叔, **穆**穆**趙**趙, **龔**(詢)于政, **明**于德, **高**(享)佐刺(厲)王。
逯肇(續)朕皇祖考服, 虔夙夕敬朕死(尸)事, 肆天子多易(賜)逯休。”

이는 銅器 銘文의 일반적인 규율로 볼 때 당시의 王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銅器 製作者인 逯가 天子로 섬긴 王은 宣王이 된다. 다음으로 器物의 형태

와 문양을 통해서 기물의 斷代를 추정할 수 있다.



《逯盤》은 크기가 매우 큰 기물에 속한다. 逯盤은 높이 20.4cm, 口徑 53.6cm, 圈足은 직경 41cm, 길이 10.4cm, 獸足의 높이 4.2cm, 중량은 18.5kg이다. 盤은 물을 담는 그릇으로 보통 匜와 세트로 사용된다. 逯盤은 정사각형 입술과 접힌 가장자리, 깊이가 얇고, 양쪽에 귀가 부착되어 있으며, 양쪽에 고리를 물고 있는 圈足 아래 네 개의 獸足이 있다. 배와 圈足에는 窃曲紋이 장식되어 있으며, 고리머리는 獸首가 고리를 물고 있는 모양이다. 銘文은 盤 안쪽에 21行으로 鑄造되어 있다. 口徑이 《史牆盤》보다 크고, 《散氏盤》보다는 작다. 높이는 《散氏盤》과 비슷하다.

《逯盤》의 형태는 독특해서 양쪽에 부착된 귀 사이에 獸首고리가 달려있다. 이러한 형태는 西周 銅盤 중에 처음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逯盤》 측면에 부착된 나선형 뿔의 獸首와 鼻形 발은 모두 西周 末期 簋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이다. 《逯盤》의 腹部와 圈足에 窃曲紋이 장식되어 있으며, 귀에는 鱗紋이 있고 獸首가 물고 있는 고리에도 鱗紋이 장식되어 있다. 《逯盤》에 장식된 窃曲紋은 여러 窃曲紋 중에서도 西周 末期에 유행하던 두개의 U형이 위아래로 겹쳐진 모양이다. 이와 같이 기물의 형태와 문양이 西周 末期의 특징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逯盤》은 宣王時期 標準器로서의 조건이 충분하다.

5. 결론

본고는 《逯盤》이 발견된 이후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逯器 銘文을 考釋하고 考釋한 내용을 全文 韓譯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또한 銘文 내용 중의 중요한 歷史的 사실은 기존의 자료와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逯盤》銘文에는 완벽한 西周 諸王 世系와 중요한 歷史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周 文王에서부터 武王、成王、康王、昭王、穆王、龔(共)王、懿王、考(孝)王、夷王、刺(厲)王과 宣王까지 모두 12代 周王이 기록되어 있다. 銘文의 周王 世系가 《史記·周本紀》 및 기타 史籍에 기록된 周王의 諡號와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는 《周本紀》가 歷史的 사실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出土 文物은 《史記》의 정확성을 증명하고, 《史記》의 내용을 한층 더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實物資料가 되었다. 또한 《逯盤》에는 單公에서부터 逯에 이르는 單氏 家族史가 기술되어 있다. 이는 최초로 완벽하게 기록된 家族史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출토된 單氏 가족 관련 銅器의 斷代를 정확하게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가지게 된 것이다.

먼저 斷代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물의 形態와 문양 그리고 銘文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銘文의 내용을 보면, 《逯盤》銘文에서 厲王 다음의 王을 天子로 칭하고 있다. 이는 銅器 銘文의 일반적인 규율로 볼 때 당시의 王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銅器 製作者인 逯가 天子로 섬긴 王은 宣王이 된다. 다음으로 器物의 형태와 紋飾 또한 西周 末期의 특징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逯盤》은 宣王時期 標準器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逯盤》銘文에 대한 분석은 향후 西周 歷史、考古、文字學 研究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早書】 《逯盤》銘文 拓本(《考古與文物》季刊本)



《참고문헌》

- 許慎 《說文解字》，中華書局，香港
- 段玉裁 1987 《說文解字注》，天工書局，臺北
- 容庚 1985 《金文編》(張振林·馬國權 增補版)，中華書局，北京
- 高明 1980 《古文字類編》，中華書局，北京
- 徐中舒 1988 《漢語古文字字形表》，文史哲出版社，影印水
1989 《甲骨文字典》，四川辭書出版社
- 陳初生 1987 《金文常用字典》，陝西人民出版社
- 全廣鎮 1989 《兩周金文通假字研究》，學生書局，臺北
1999 〈中國青銅器「史牆盤」銘文的文獻學的研究〉，《中語中文學》第24輯
- 梁東淑 2005 《甲骨文解讀》，書藝文人畫
- 孫稚離 1981 《金文著錄簡目》，中華書局，北京
- 洪家義 1988 《金文選注釋》，江蘇教育出版社
- 陳夢家 2004 《西周銅器斷代上·下》，中華書局，北京
- 楊樹達 1997 《積微居金文說》，中華書局，北京
- 馬承源 1988 《中國青銅器》，上海古籍出版社
- 陝西省文物局、中華世紀壇藝術館 2003 《盛世吉金—陝西寶雞眉縣青銅器窖藏》，北京出版社
- 國家文物局 2004 《中國重要考古發現》，文物出版社
- 李學勤 2003 〈眉縣楊家村新出青銅器研究〉，《文物》2003年 第6期
- 江林昌 2003 〈眉縣新出青銅器與西周王室世系、年代學及相關問題〉，《文史哲》2003年 第5期
- 董珊 2003 〈略論西周單氏家族窖藏青銅器銘文〉，《中國歷史文物》2003年 第4期
- 張潤棠 2003 〈眉縣楊家村窖藏青銅器述評〉，《寶雞文理學院學報》第23卷 第5期
- 裘錫圭 2003 〈讀迷盤銘文札記三則〉，《文物》2003年 第6期
- 周曉陸 2003 〈徠盤讀箋〉，《北京師範大學學報》2003年 第5期
- 彭曦 2003 〈迷盤銘文的注譯及簡析〉，《寶雞文理學院學報》第23卷 第5期
- 王輝 2003 〈迷盤銘文箋釋〉，《考古與文物》2003年 第3期
- 劉源 2003 〈迷盤銘文考釋〉，《中國史研究》2003年 第4期
- 劉懷君 2003 〈眉縣楊家村西周窖藏青銅器的初步認識〉，《考古與文物》2003年 第3期
- 馬承源 외 2003 〈陝西眉縣出土窖藏青銅器筆談〉，《文物》2003年 第6期

曹 璋 2003 〈單氏家族銅器群〉，《文物》2003年 第6期

《考古與文物》編輯部 2003 〈寶雞眉縣楊家村西周窖藏單氏家族青銅器群座談紀要〉，《考古與文物》2003年 第3期

陝西考古研究所 외 2003 〈陝西眉縣楊家村西周青銅器窖藏〉，《考古與文物》2003年 第3期

《中文提要》

逯盤記述了第一部幾乎完整的西周諸王世系，從文王一直到厲王，這些王的稱謂應屬於諡號，按銅器銘文的一般規律，時王才稱之為天子，厲王之後稱天子，說明**逯**盤為宣王器。也就是說**逯**盤記述了文王到宣王12代周王。**逯**盤追述歷代周王由文王至厲王，對時王也只稱天子而不稱宣王，可見銅器銘文所見的文、武、成、康、昭、穆、恭、懿、孝、夷、厲等王號，俱是死後的諡號，而非生稱。**逯**盤銘文最重要的學術意義，在於記錄了比較完整的西周諸王世系及重大史事。**逯**盤銘文中共記錄了12位周王，基本上勾勒出西周周王世系。而此前，記錄西周諸王最多的史牆盤則僅記述了文王至共王7位周王。這一點引起學術界的極大重視。**逯**盤銘文印證了《周本紀》的正確性，其意義可與甲骨文印證《商本紀》商王世系相比。陝西楊家邨新發現的**逯**盤，是近年西周時期考古的重大發現，對於西周歷史和銅器斷代的研究具有重要意義。

關鍵語：西周 青銅器，金文，銘文，**逯**盤